

# NEWS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 전남 1680억 투입...친환경수산물 기반 구축

### ▶1면 '광주방문의해'서 계속

아울러 광주시는 올 한해 '방문의 해' 범업 조성과 전략적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주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력적인 구호(슬로건)를 개발하고 기념품 제작, 인플루언서·유명인 활용 마케팅, 방문의 해 선포식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 홍보를 위해서는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인플루언서, 기자단을 초청해 광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스포츠 영상 콘텐츠 제작, 해시태그 챌린지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시는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문화·예술·스포츠 등 광주만의 강점을 살려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방문의 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서울에서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2025년 광주 방문의 해의 목적은 시민과 외지 방문객들에게 광주의 진정한 기운, 정신 등 진짜 광주를 경험하게 하는데 있다"며 "관광이 산업이 되고 중심이 되는 관광도시로 대전환을 위해 광주 방문의 해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1면 '전남 구제역'서 계속

농식품부 검역본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이번 구제역은 2021년에 발생한 몽골형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형태는 밝혀졌지만, 어떻게 유입됐고 전파됐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남지역 한우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96.5%로 전국 평균보다 0.8% 낮다.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의 한우 농장에서 18km나 떨어진 무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확산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구제역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긴급 방역 대응 특별교부세 21억원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등 현안을 건의했다.

### 도, 스마트 김 종자 생산시설 등 79개 사업 추진 4대 분야 양식어업 육성·수산자원 관리 등 강화

전남도가 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총 1680억원을 들여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 4대 분야 79개 사업을 추진, 전남 수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

축, 양식어업 육성 지원,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조성, 어업인 안전 및 복지 실현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분야의 경우 747억원을 들여 육상 양식 어가에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인준비와 국제인증비를

지원하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한다.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7억원을 들여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위한 중저급수업, 어류양식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매년 발생하는 어업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와 재해보험료 등에 67억원 지원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

호를 위해 165억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상 씨뿌림 사업과 인공어초 설치 및 유해 생물 구제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산생물의 서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바다숲 조성 면적 확대를 비롯해 루카본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어선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84억원을 들여 안전보험료와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항포구에 인양기와 부잔교 등 어업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선박 화재감지기, 구

명조끼 등 조업 안전 장비를 보급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지원 매뉴얼을 개정했다.

전북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전북 양식어가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장우 전남도 친환경수산물과장은 "4대 분야 사업을 총총히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활기차고 웃음 넘치는 풍요로운 어촌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도청 접견실에서 타니 썬랏 주한 태국대사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김영록 지사, 주한 태국대사와 협력 모색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교류 증진키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도청 접견실에서 타니 썬랏 주한 태국 대사를 만나 전남도와 태국 간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은 태국과 전남도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측 간 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제주 항공 참사로 희생된 태국인 2명에 대한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에 직접 조문을 외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태국과의 교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농업, 관광,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8~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10월), 국제농업박람회(10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2026년 9~10월) 등 전남도가 개최하는 다채로운 국제행사를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도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타니 썬랏 대사는 "전남도의 여러 기관을 방문, 양측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광 분야와 철강, 화학, 에너지, 우주·첨단산업을 비롯한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도와 태국 간 교류·협력이 지속해서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정철 기자 hobul@

## 광주시, 호남 첫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 2029년까지 5년간 846억 투입...3개 전략·31개 과제 실천 도심 내 자연공존지역 도입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앞장

광주시가 도시 생태축·훼손지 복원,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도입 등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 생태도시 조성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846억원(국비 360억원, 시비 486억원)을 투입해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생태계서비스 이익증대,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 3개 전략과 31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광주시 생물다양성 전략'을 추진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도시 생태축·훼손지 복원,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도입, 장류습지 탐사르습지 지정 및 탄소흡수원 조성 등 14개 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2024~2028)'과 연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 내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한다. OECM은 공식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뜻한다.

또 '생태계서비스 이익 증대'를 위해 도시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및 고유지표 발굴, 도시녹지 및 공원 확충, 생태계 조성·관리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생물다양성 주류화'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홍보, 생물다양성탐사(바이오펀드) 운영, 시민 참여형 멸종위기 야생생물 모니터링, 지역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을 반영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광주시의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은 광주연구원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23)'를 시작으로 지난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자문, 설명회,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역단위에서의 실질적인 보전 노력이 국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호남권 최초로 실효성 있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광주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종덕, 한빛원전 위험 외주화 중단 촉구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17일 "한빛원전 경성정비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정비 업무는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업무들이 대부분이다. 국민 안전과 에너지 공공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빛원전 위험의 외주화, 경성정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이날 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

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이윤을 목적으로 자본에 팔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돈보다 생명,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이 우선인 만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한빛원전 경성정비 민영화 중단을 위해 국회에서 더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과 민주노동당 공공연대노동조합, 한빛원전 경성정비 노동자들은 "원전의 경성 정비는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수인데, 민간 분야로의 외주화가 확대될 경우, 자칫 부실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영화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NAC@S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NAC@S

영남대학교·세명대학교

NAVER

중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구름다리 옆

## 062) 376-5425